

# ‘화순의 딸’ 임애지,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 새역사 쓴다

### 54kg급 16강전, 브라질에 4-1 판정승... 내일 콜롬비아와 8강 중2매 부모 반대 무릅쓰고 입문...빠른 발·치침없는 공격 장점

2024 파리 올림픽 한국 복싱 대표팀 임애지(화순군청)가 한국 복싱 '새 역사'에 도전한다. 임애지는 지난 31일 프랑스 파리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복싱 여자 54kg급 16강전에서 브라질의 타티아나 레지나 지 헤수스 사가스를 상대로 4-1(30-27 30-27 30-27 30-27 27-30) 판정승을 거뒀다.

빠른 발놀림과 치침없는 공격으로 경기 내내 우위를 점하며 8강 진출에 성공한 임애지는 오는 2일 오전 4시 4분 콜롬비아의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를 상대한다.

임애지는 이 경기를 통해 한국 복싱 12년만의 올림픽 메달이자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복싱에서는 동메달이 2명에게 수여됨에 따라, 임애지가 8강에서 승리하면 한국 여자 복싱 최초의 메달리스트이자 한국 12년만의 복싱 메달리스트가 된다.

한국 복싱의 마지막 올림픽 메달은 2012 런던 대회 남자 라이트급 한순철의 은메달이다.

임애지는 화순중-전남기술과학고-한국체대를 거쳐 화순군청에 입단했다.

'국가대표' 임애지의 시작, 엄마의 반대를 무릅

쓴 도전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당시 화순에서 열린 군수배 복싱 대회를 지나가다 우연히 본 임애지는 처음으로 복싱의 매력에 느꼈다.

임애지는 "엄마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안 된다고 하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복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잘하게 되고 이게 직업이 되면서 '복싱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임애지의 복싱을 반대했지만 사실 임애지의 어머니는 딸에게 특별한 'DNA'를 물려줬다.

현재 파리에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는 임애지의 어머니는 마라톤 대회 기획사인 '마라톤 세상'의 이영애 대표다.

마라톤에 폭 빠져 국내 대회는 물론 해외 대회에도 참가한 대표는 아예 2002년에는 기획사를 차려 광주일보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직접 마라톤 코스를 뛰며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체육인이다.

임애지의 동생 임하진(개명 전 임가을)도 언니의 뒤를 이어 태극 마크를 노리는 크로스컨트리 선수다.

화순초를 졸업한 임하진은 전남체중에 입학했다

가 대관령중으로 전학을 가면서 본격적으로 스키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상지대관령고에서 홍순철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키운 임하진은 언니를 따라 한국체대에 입학했고, 현재 경기도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하진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8회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어 한국에서 언니를 응원하고 있다.

임하진은 "원래 너무 긴장돼서 언니 경기 영상을 잘 못 본다. 이번에 응원하면서도 너무 긴장됐다"며 "경기 마치고 나서 새벽에 영상을 다시 봤다. 연락해서 언니한테 다치지만 말고 잘하고 오라고 얘기해줬다"고 전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 한국 복싱에는 임애지만이 남았다.

앞서 오연지(여자 60kg·울산시체육회)는 16강의 벽을 넘지 못하고 32강전에서 대만의 우스이에 패했다.

임애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1년 미뤄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57kg급에 출전해 16강에서 탈락했다. 임애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체급을 54kg급으로 낮췄다.

임애지가 그의 장점인 가벼운 몸놀림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8강의 벽을 넘어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울지마오! 황금세대 ... 그대들 있어 행복했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수영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6위를 차지한 한국의 김우민(왼쪽부터), 황선우, 양재훈, 이호준가 아쉬워하고 있다.

### 남자 계영 800m 7분07초26...6위 '메달 실패'

황선우(강원도청)가 붉어진 눈으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사이, 이호준(제주시청)은 등을 돌려 눈물을 흘렸다. 첫 영자로 나서 부진했던 만형 양재훈(강원도청)도 울었다.

김우민(강원도청)만이 차분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한 명씩 다독였다.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단체전 메달을 노렸던 '황금세대'의 도전은 눈물로 끝났다.

31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경영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양재훈, 이호준, 김우민, 황선우 순으로 입수한 한국은 7분07초26으로 6위를 했다.

한국 수영의 올림픽 수영 단체전 사상 첫 결승 진출에 성공한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

하지만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

에게 올림픽 메달은 닿지 않았다.

황선우는 "7분7초대 기록으로 한국 기록(7분01초73)보다 5초 이상 느린 기록으로 결승을 마무리했다"고 운을 뗐 뒤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응원해주셨는데 실망을 드렸습니다"며 "마음을 다잡고, 이번 대회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민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해 결승 무대에 선 건 영광"이라며 "결과는 아쉽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한 과정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료들을 격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다.

첫 영자로 나서 부진했던 만형 양재훈은 "내가 보여준 게 없어서 아쉽고 미안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호준도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내 속상하다"며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부터 올림픽 기간에 음식을 준비해준 분들까지 정말 감사한 분이 많다.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 남자 계영 800m는 아쉽게 끝났지만,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는 여러 국제대회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황선우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내년 세계선수권, 2년 뒤 아시안게임, 나아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재경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자 혼계영 400m에 출전하는 황선우는 "아직 파리 올림픽 경기가 남았으니, 혼계영 멤버들과 힘을 모아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개인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땀지만, 동료들과 함께 시상대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김우민은 "오늘의 아픔을 4년 뒤에 열리는 올림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참가에 의의 둔 진정한 올림피언

### 키리바시 유도선수, 5초만에 한판패...“기수 경험 잊지 못해”

흔히 올림픽은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말 그대로 참가에만 의의를 두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림픽 입상 가능성이 없는 선수는 출전 자격을 갖췄더라도 파견하지 않겠다고 해 자국 선수와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27일 개막한 2024 파리 올림픽에도 정말 참가에 의의를 두고 나온 진정한 올림피언들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먼저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유도 선수 네라 티브와가 대표적이다.

2008년생 티브와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도 여자 57kg급 1회전에서 다리아 빌로디드(우크라이나)에게 한판으로 졌다.

경기 시작 신호가 나고 불과 5초 만에 경기가 끝났다. 그런데 키리바시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거리는 무려 1만4000km나 된다. 직항편도 없어 비행기 환승에 거의 이틀 이상이 걸려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왔다.

경기는 너무 급방 끝났지만 티브와는 이번 대회 개최식에서 키리바시 선수단 기수를 맡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올해 15세인 그는 이번 대회 유도 선수 가운데 최연소다.

수리남의 배드민턴 선수 소렌 오프티도 비슷한 경우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올림픽 데뷔전을 치렀는데 당시 세계 랭킹 1위 리츨웨이(말레이시아)를 만나 0-2(2-21 3-21)로 완패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의 스위치에게 0-2(5-21 7-21)로 졌다.

남미 수리남에서 7000km 이상을 날아온 오프티는 "중국 선수에게 졌지만 좋은 점수도 몇 개 따내서 다행"이라며 "개회식에서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를 볼 수 있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고 즐거워했다.

난민 대표팀 마틴 발시니는 수영 남자 접영 200m에 출전했으나 2분00초73으로 예선 탈락했다.

출전 선수 28명 가운데 27위다. 2분대 기록은 발시니와 팔찌인 제럴드 헤르만데스(니카라과) 2명뿐이다.

이란 출신 발시니는 2022년 영국으로 망명했다. 망명 과정에서 7개월간 수영 연습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올림픽에 나온 이유를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펜싱 선수 올레나 크라바츠카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폭격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집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고, 8월 3일 단체전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 패럴림픽 17개 종목 177명 출전

### 최연소, 19세 보치아 서민규·최고령, 64세 양궁 김옥금씨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 한국 선수단의 규모가 확정됐다.

한국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17개 종목, 177명의 선수단(선수 83명, 임원 94명)이 패럴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다.

한국 선수단에서는 ▲양궁 6명 ▲배드민턴 7명 ▲보치아 6명 ▲카누 1명 ▲골볼 6명 ▲조정 5명 ▲사격 12명 ▲수영 4명 ▲트라이애슬론 1명 ▲역도 4명 ▲유도 2명이 출전한다.

이 중 최연소 선수는 2005년생인 보치아의 서민규(안산 명혜학교)이고, 최고령 선수는 1960년생인 양궁의 김옥금(광주시청)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17명의 선수가 파리행을 결정지었다.

광주는 6개 종목에 16명의 선수단(감독1, 코치2, 선수11, 보조선수1, 로터)이 나선다.

시 소속 탁구팀 박진철·김정길·김영건·서수연·김성욱, 양궁팀 김옥금·정진영, 사격연맹 박동안, 조정연맹 김세정, 보치아연맹 강선희, 육상연맹 정지성이 출전한다.

전남에서는 4개 종목에 7명의 선수단(임원1, 선수6)이 출격한다.

사격의 이윤리(완도군청), 펜싱의 백경혜(한전 KDN), 배드민턴 유수영·권현아·정겨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궁 장경숙(한전KDN)이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이상, 총합 순위 20위권 진입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12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치른다.

이어 8월 14일 선발대를 시작으로 종목별 일정에 맞춰 파리로 향한다.

선수단은 대회 개막 전까지 파리 동남부 외곽 크레테유 메종 드 핸드블에서 사전캠프를 진행,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한국 장애인 선수단은 1988 서울 대회부터 2008 베이징 대회까지 6회 연속 두 자릿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2012 런던 대회 9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7개, 2020 도쿄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 획득에 그쳤다.

한편 2024 파리 패럴림픽은 오는 28일 개막해 9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2개 종목 184개국 4400명이 참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